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 실시

안춘배 기자 | 승인 2025.05.27 09:24

운영대의원 의견 적극 수렴, 농업기반 시설 관리 효율성 제고
꽃길 따라 '청림이 왔나 봄' 행사도 진행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지사장 최진)는 지난 22일, 지사 회의실에서 상반기 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도 지역 각 지구 농업을 대표하는 운영대의원이 참석해 진도지사의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농업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주요 안건으로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현황과 영농 급수대책 ▲농지은행사업 추진 현황 ▲농어촌사업부 주요사업 현황 ▲재난 대비와 재해 예방 대책 ▲홍수기 관리수위 관리 철저 협조 등이 다뤄졌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안정적인 영농 급수를 위한 물 관리 방안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대비와 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농업인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최 진 지사장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공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진도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편익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운영대의원 "농업인들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려는 노력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도지사는 이번 운영대의원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농업인 중심의 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올해 반부패·불공정 개선과제 중 하나인 MZ그룹 '청림명량(明亮)'의 활동 일환으로 꽃길 따라 '청림이 왔나 봄' 행사를 진행했다.

MZ그룹 '청렴명량(明亮)'은 2016년도 이후 입사자들로 구성돼 다양한 공모전 참여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설 계획이며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추진했다.

이번 활동은 백조호수공원 꽃길 탐방을 통해 MZ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렴도와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며 열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안춘배 기자 acbae@aflnews.co.kr